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III. 경영참고사항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7
나. 회사의 현황	13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22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9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03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선임.....	106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8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109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10
가. 제출 개요.....	110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10
※ 참고사항.....	1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2 월 16 일

회 사 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대 표 이 사 : 오 진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전 화) 031-499-0394
(홈페이지)<http://www.samhw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배 맹 달
(전 화) 02-765-36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4기 정기)

삼가 주주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본점 안산공장 강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4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사외이사 후보 이정훈 (신규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상근감사 후보 연현모 (신규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6일 9시 ~ 2021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3항)

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체온측정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자체적으로 참석주주분들께 총회장 입장 전 ①체온계를 이용해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②마스크 착용확인 및 ③손소독제 사용, ④출입자명부 작성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주분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공용표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1	2020-01-22	제73기(2019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제73기(2019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보고사항 2019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보고사항 2019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2	2020-01-29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이사후보 추천의 건	찬성
		이익잉여금 처분액 결정의 건	찬성
		임원(이사보 포함) 인사에 관한 건	찬성
3	2020-02-17	제73기(2019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제73기(2019사업년도) (수정)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지점 설치의 건	찬성
		준법지원인의 준법활동평가 보고의 건	찬성
4	2020-02-28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찬성
5	2020-03-10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임원 연봉 결정의 건	찬성
6	2020-04-20	현지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찬성
		현지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찬성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찬성
7	2020-05-18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찬성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 차입의 건	찬성
		한국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약정의 건	찬성
8	2020-08-12	타법인 지분취득의 건	찬성
9	2020-10-19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찬성
		현지투자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찬성
10	2020-12-15	투자법인 자금 대여의 건	찬성
		투자법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찬성
		투자법인 자금 대여 연장의 건	찬성
		지배인 해임의 건	찬성

	지배인 선임의 건	찬성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명	3,000	48	48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총보수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운송주선 등 용역거래	(주)삼화로지텍 (종속회사)	'20.01.01~'20.12.31	17,910	3.7

※ 상기 비율은 2020년 별도매출액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와 종속회사는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 IT 부문, 기타(운송주선 및 금융)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은 종합도료 제조사로서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 800여개 대리점 유통망과 기업 영업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 이외에 (주)에스엠투네트웍스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 컨설팅 등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삼화로지텍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유씨에이치파트너스는 투자 및 자문업을,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1) 산업의 특성

도료산업은 화학제품 원료기술과 응용기술이 집약된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써 도료는 건설,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 등 광범위한 전방산업의 마감재로 사용돼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용 도료는 전통적인 건설산업 수요 외에 최근에는 셀프페인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의 직접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대량 생산체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과거 중소기업체가 경쟁하던 시기에서 점차 첨단 기술 기반의 품질,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와 고객 응대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도료는 제품의 특성상 반제품 형태로 중간 소비자(도장업자 또는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도장공정을 거친 후 완성된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도료산업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아 유가, 환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반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도료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2) 성장성

도료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및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비·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책에 민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1월 발표한 <KDI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재확산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의 점진적인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토목부문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행지수인 건설수주가 확대되고 주택 착공이 1월 ~ 11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12.6% 증가하고 미분양 주택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건설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11월 중순 이후 전국적인 COVID-19의 재확산과 방역조치의 강화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방산업이 둔화되고 그 회복세가 빠르지 않지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문별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해 도료 아이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 인테리어 소비재로서 포지셔닝 등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도료산업은 건설경기 등 전방산업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건축용 도료는 계절적 요인 및 정부 정책과 관련한 경기동향에 따라 주기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건축용 도료는 일반 소비자들의 셀프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직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출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계절성

건축용 도료 수요는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좋은 봄, 가을 판매량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름 장마 및 겨울철 이상 고온에 대한 기후 변화 불확실성으로 계절별 편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도료는 계절에 따른 기후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전방산업 경기에 따라 매출구조가 변화합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

당사를 포함한 종합 도료제조사는 케이씨씨,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겸비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집중되면서 이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및 기능성 도료 등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상위 업체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 인식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선택 관심도가 높아지는 산업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단순히 보여지는 역할만이 아닌 그 기능과 의미가 내포된 제품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해 해외 수요 변화에도 주시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건축용 도료 산업은 품질(친환경성, 작업성 등), 가격, 인지도, 구매편리성, 사후 관리 등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고기능성, 가성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기용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으며, 고기능 프리미엄 도료의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설비, 신제품 개발 능력을 확보한 도료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800여개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동종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셀프페인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제품개량을 꾸준히 하며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도료 또한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고 있는 PCM 도료를 비롯해 플라스틱 도료, 패키징 도료, 자동차 도료 등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라 알려진 분체도료의 경우 공주공장에 전용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갖추고 품질과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능성 도료인 재난방지 도료,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열도료 등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1) 산업의 특성

IT시스템 산업은 통신서비스 및 지식정보사회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프로그램 구축과 소프트웨어 제공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 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 구축과 관리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 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IT시스템 서비스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나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역량을 고도화 시키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성장성

국내 IT시스템 산업은 삼성SDS, LG CNS, SK 등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고객은 그룹 계열사와 그외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나아가 시스템 통합 구축과 관리, e비즈니스, IT 컨설팅 등으로 IT시스템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의 이슈,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추진에 따른 신기술 도입 등 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IT시스템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IT시스템 산업은 각 기업이 설비투자과 무형자산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인프라 구축 계획과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화 수준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기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4) 국내의 시장여건

과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IT시스템 시장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갖추면서 대규모 신규 시스템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 관리영역이 주요 수익원이 되며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룹 계열사로 있는 IT시스템 기업은 그룹 및 계열사 수주로 규모가 성장했고,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업 투자 증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IT시스템 부문은 산업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이해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 경쟁 우위 요소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통합 유지보수, IT 자산관리, 데이터 분석, ERP 정보관리 등 솔루션 공급에 대한 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IT시스템 부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 운송주선

(1) 산업의 특성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①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②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③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서비스는 경제성장, 산업의 발전으로 물류전략이 고도화되고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 등으로 인해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 성장성

정부의 물류시스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산업의 확장,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 글로벌화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물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 경제규모와 교역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산업 전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대면 배송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물류 실적은 물동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경기에 따라 물류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제상황 즉 경기변동, 경제성장률, 수출입물동, 기후, 국제정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운송업 특성상 세계 유가변동과 계절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4) 국내의 시장여건

국내 운송업계는 도로교통 정체,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영업용 화물차의 높은 수송분담 구조, 낙후된 화물터미널 시설 및 화물유통 정보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로 운송 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 국내 운송업체는 일부 주요 업체를 제외하고 개별 차주 형태의 영세업체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반의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물류운영 품질과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과거에는 원가절감에 의한 비용경쟁이 주였으나, 근래에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고객 요구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 외에 물류사업 기술, 네트워크 연계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물류보안 및 안전시스템 강화, IT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급망 가시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 운송주선 부문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내부 IT시스템 활용, 구축, 안정화 진행 작업으로 제조·리테일과 관련한 통합 물류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우수한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

(1) 산업의 특성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법률에 의거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후 영업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금융에서 상업은행을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MFO')은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한 대출한도 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2) 성장성

2019년 6월말 기준, 키르기스스탄에는 25개 상업은행과 8개의 MFC, UCHC와 같은 92개의 MCC, 39개의 MCA, 96개의 신용조합이 활발히 영업중이며, NBKR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주요 MFC 및 MCC 약 3개 회사가 은행으로 전환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MFC 및 MCC는 은행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와 특히 2014년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극심한 경제불황은 이들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었으나 COVID-19의 영향과 키르기스스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교역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부진으로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시장여건

키르기스스탄 주요 산업별 분포는 농축산업 12%, 가공업 15%, 건설업 8%, 도·소매 및 무역관련업 4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변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COVID-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실시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는 5월부터 업종별로 경제재개를 하였으나, 러시아/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COVID-19 영향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UCHC는 수신기능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규정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계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운영자금규모, 대출취급비, 대고객 서비스의 질 등입니다.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운영자금 규모 확대는 필수적이며, UCHC도 이 부분을 위해 투자자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수요변화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발빠르게 운영 중입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COVID-19 확산 및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인근 경제교역국의 COVID-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환율급등세 지속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2020년은 COVID-19 확산 및 여파가 국·내외적으로 장기화 되면서 모든 산업군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도료시장 또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보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경제·사회의 개인화/간소화/효율화/비대면 등으로의 인식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료시장도 COVID-19로 인해 나타난 '집꾸미기 열풍'과 함께 B2C 시장의 도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DIY, 인테리어 제품의 다기능화, 친환경 바람이 일면서 '기능성 도료'와 '고부가가치 도료'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당사도 새로운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 브랜드 '아이럭스(iLUX)'를 출시하여, '친환경성'과 '고품질 가치'를 선보이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 꾸준한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기능', '고품질', '작업성 편리' 등 도장 비용까지 고려한 제품을 연내 지속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컬러디자이너까지 포함한 채도장 전문팀을 운영, 입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용해 색채 계획 반영 및 색채 설계에 따른 컬러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COVID-19로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많은 R&D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1년 1월에 출시한

삼화페인트 안심닥터는 다공성 항바이러스 무기물을 적용하여 표면에 접촉되는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인정 받았습니다. 감염 예방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노인, 어린이, 기저질환자들이 주로 머무는 병원, 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기존 건축용 페인트가 대체되어 매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속적으로 친환경이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강화된 정부 규제에 적합하고, 기존 도료보다 더 친환경이며, 기능이 부여된 도료를 꾸준히 개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대리점 유통망을 바탕으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발굴과 각 제품군에 대한 신규 매출원 모색을 위해 시장 개척 및 다양한 사업 진출을 검토,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료시장을 벗어나 베트남,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 확보와 새로운 판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현지에 맞는 제품군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부진과 COVID-19영향, 유가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세이나 대체원료

개발, 효율적 비용집행으로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한편, 재난방지도료, 에너지절감도료, 유해

물질 저감 도료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가치 아이템 중심으로 매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IT>

최근의 IT시스템 서비스 시장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역량을 고도화 시키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룹에 속한 IT서비스 기업들이 그룹 본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수주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등 신규 IT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라 IT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IT부문은 그룹 및 계열회사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을 위한 클라우드 및 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 운송주선

육상운송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경기, 수출입물동량 등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해운산업과 같이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영업지역이 국내에 제한되어 있어 해외 경기변화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며 물류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성이 선진국 대비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배송의 중요성, 특히 비대면 배송시장인 온라인 물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여 물류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개선에 방점을 두고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

현재 키르기스스탄 MFO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전체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키르기스스탄과 가장 밀접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영향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제재 등이 다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저유가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로 과거 2, 3년간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확산 및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인근 경제교역국의 COVID-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환율급등세 지속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UCHC는 2016년부터 대출자산의 건전성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대출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담보부 97%, 보증부 3%)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건전성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익성개선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대상회사명	주요 제품의 명칭 등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삼화페인트공업(주) 흙앤톤즈(주) (주)대림화학 이노에프앤아이(주)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삼화재료과기(광동)유한공사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SAMHWA-VH COMPANY LIMITED SAMHWA PAINTS(M) SDN.BHD. SAMHWA PAINTS INDIA PRIVATE LIMITED SAMHWA PAINTS SOUTH INDIA PRIVATE LIMITED	건축용 도료, 공업용도료 등
IT	(주)에스엠투네트웍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판매
기타	(주)삼화로지텍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	화물운송 주선 투자자문, 소매금융

①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영위하는 영업에 따른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총매출액	562,016,593,411	9,982,467,572	19,835,125,960	(40,115,354,281)	551,718,832,662
내부매출액	(17,569,207,322)	(4,146,596,588)	(18,399,550,371)	40,115,354,281	-
순매출액	544,447,386,089	5,835,870,984	1,435,575,589	-	551,718,832,662
영업이익(손실)	13,142,490,075	248,343,005	940,571,833	689,049,392	15,020,454,305

(전기)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총매출액	550,663,642,641	9,374,108,687	19,385,955,708	(39,147,007,187)	540,276,699,849

내부매출액	(17,347,351,514)	(3,995,621,440)	(17,804,034,233)	39,147,007,187	-
순매출액	533,316,291,12 7	5,378,487,247	1,581,921,475	-	540,276,699,84 9
영업이익(손실)	9,458,147,408	432,239,495	1,721,693,883	(363,411,138)	11,248,669,648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영업부문별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자산총계	630,290,031,722	6,556,541,872	14,616,179,202	(57,169,779,032)	594,292,973,764
부채총계	318,663,546,122	3,978,304,812	4,973,691,181	(25,637,675,588)	301,977,866,527
차입금 및 사채	152,621,274,708	2,642,800,000	3,383,885,090	(10,951,116,871)	147,696,842,927

(전기말)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자산총계	593,406,449,176	9,468,127,070	16,124,164,414	(58,358,041,082)	560,640,699,578
부채총계	293,073,375,034	5,927,010,211	5,089,092,761	(25,616,232,782)	278,473,245,224
차입금 및 사채	140,383,318,950	2,142,800,000	3,562,001,872	(9,734,144,707)	136,353,976,115

(2) 시장점유율

* 도료사별 국내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삼화페인트>>	16%	16%	16%
A사	31%	32%	33%
B사	19%	19%	18%
C사	9%	9%	9%
D사	7%	7%	7%
기타	18%	17%	17%

※ 국내도료시장 전체 매출규모와 도료사들의 매출규모를 추정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으며, 상기 표상의 수치들은 추정치이므로 실제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T, 기타 부문은 아직 시장 규모대비 점유율이 미미하여 시장 점유율 산정을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도료산업은 화학제품 원료기술과 응용기술이 집약된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써 도료는 건설,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 등 광범위한 전방산업의 마감재로 사용돼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용 도료는 전통적인 건설산업 수요 외에 최근에는 셀프페인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의 직접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대량 생산체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과거 중소기업체가 경쟁하던 시기에서 점차 첨단 기술 기반의 품질,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와 고객 응대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도료는 제품의 특성상 반제품 형태로 중간 소비자(도장업자 또는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도장공정을 거친 후 완성된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도료산업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아 유가, 환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반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도료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IT>

IT시스템 산업은 통신서비스 및 지식정보사회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프로그램 구축과 소프트웨어 제공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 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 구축과 관리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 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IT시스템 서비스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나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역량을 고도화 시키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 운송주선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①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②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③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서비스는 경제성장, 산업의 발전으로 물류전략이 고도화되고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 등으로 인해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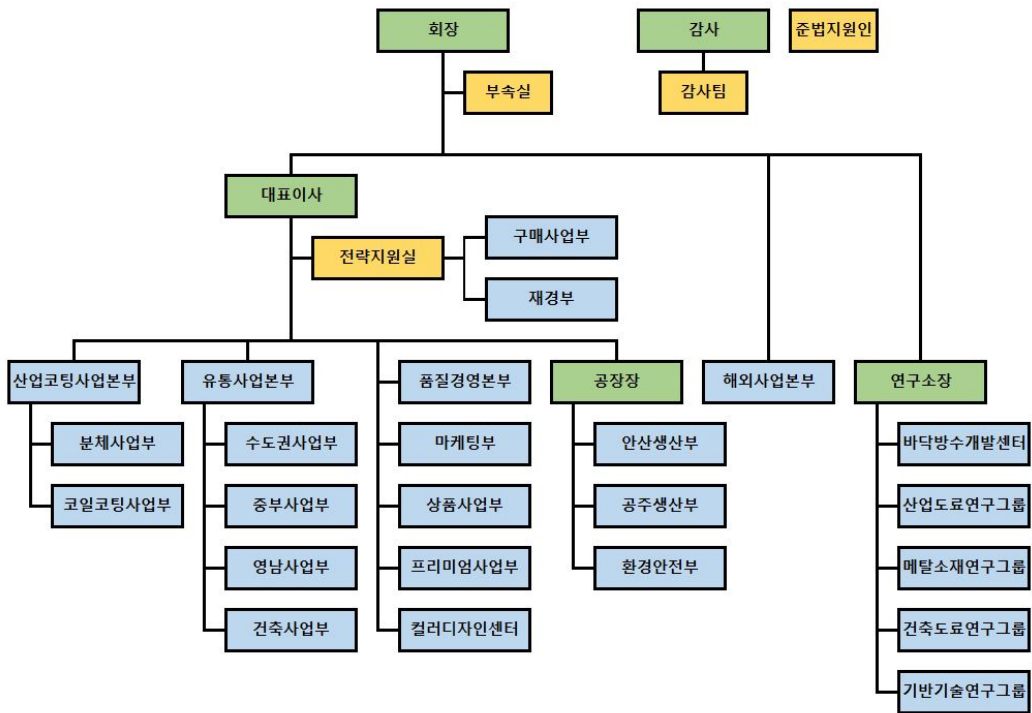
□ 금융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법률에 의거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후 영업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금융에서 상업은행을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MFO')은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연결포괄손익계산서·주석 및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석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에 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일 부터 K-IFRS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최초 적용 하였습니다.
 - K-IFRS 제1116호(리스)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공합니다.
 동 기준서는 K-IFRS 제1017호(리스), K-IFRS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제210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였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4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3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4(당) 기말		제73(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305,492,601,886		276,696,578,331
현금및현금성자산	46,315,030,481		37,744,134,736	
단기금융상품	22,068,611,851		1,939,517,98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3,397,938,975		137,241,213,339	
기타유동금융자산	160,000		1,790,000	
재고자산	90,212,428,004		93,191,272,294	
기타유동자산	3,219,445,871		5,710,594,595	
금융업채권	278,986,704		868,055,384	
Ⅱ. 비유동자산		288,800,371,878		283,944,121,24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83,039,304		2,620,700,309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288,591,296		7,298,651,29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694,767,391		1,571,448,104	
유형자산	253,148,055,730		246,154,461,153	
사용권자산	5,132,451,843		6,265,744,838	
투자부동산	4,359,617,010		5,379,750,046	
영업권	2,318,394,799		1,479,082,77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5,916,811,466		6,523,754,241	
순확정급여자산	548,907,151		604,546,176	
이연법인세자산	787,063,090		852,964,433	
기타비유동자산	844,923,236		516,164,734	
금융업채권	3,871,749,562		4,670,853,146	
자 산 총 계		594,292,973,764		560,640,699,578
부채				
Ⅰ. 유동부채		207,904,967,189		217,656,822,7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6,857,252,077		113,784,192,926	
단기차입부채	72,639,759,146		94,039,530,868	
당기법인세부채	3,147,803,420		2,998,382,461	
유동총당부채	1,110,356,789		1,057,037,861	
이연수익	143,351,019		129,717,398	
기타유동금융부채	219,300,000		948,000,000	
기타유동부채	3,671,815,088		3,558,761,229	
파생상품부채	115,329,650		1,141,200,000	
Ⅱ. 비유동부채		94,072,899,338		60,816,422,48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6,650,672		146,623,296	
장기차입부채	75,057,083,781		42,314,445,247	
이연법인세부채	16,783,567,187		16,880,151,21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03,600,000		36,500,000	
종업원급여부채	1,471,997,698		1,438,702,719	
부 채 총 계		301,977,866,527		278,473,245,224
자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 되는 자본		291,257,339,600		280,910,331,037
자본금	13,407,368,500		13,219,375,500	
기타불입자본	4,383,615,054		(3,663,711,647)	
기타자본	(2,947,002,999)		(1,420,314,091)	
이익잉여금	276,413,359,045		272,774,981,275	
Ⅱ. 비지배지분		1,057,767,637		1,257,123,317
자 본 총 계		292,315,107,237		282,167,454,35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94,292,973,764		560,640,699,578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4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3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4(당) 기		제73(전) 기	
I. 매출액		551,718,832,662		540,276,699,849
II. 매출원가		445,916,544,012		442,879,735,306
III. 매출총이익		105,802,288,650		97,396,964,543
IV. 판매비와관리비		90,781,834,345		86,148,294,895
판매비	33,995,471,652		30,751,502,096	
관리비	56,786,362,693		55,396,792,799	
V. 영업이익		15,020,454,305		11,248,669,648
VI. 금융손익		(6,332,161,738)		(5,914,261,152)
금융이익	1,510,888,020		866,213,518	
금융원가	7,843,049,758		6,780,474,670	
VII. 기타영업외손익		17,000,626		1,167,859,422
기타이익	4,482,531,049		3,820,170,705	
기타손실	4,465,530,423		2,652,311,283	
VIII. 지분법투자손익		235,129,940		(306,365,449)
지분법투자이익	238,317,116		48,807,592	
지분법투자손실	3,187,176		355,173,041	
IX.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		(45,521,301)		145,580,697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894,901,832		6,341,483,166
XI. 법인세비용		2,412,111,239		2,447,926,722
XII. 당기순이익		6,482,790,593		3,893,556,444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550,989,891		3,775,591,265	
비지배지분	(68,199,298)		117,965,179	
XIII. 기타포괄손익		(1,727,456,644)		512,963,2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1,644,688,398)		1,059,500,354
외화환산외환차이	(1,617,550,661)		1,046,436,113	
지분법자본변동	(27,137,737)		13,064,24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2,768,246)		(546,537,060)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72,219,840		(2,600,1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4,988,086)		(543,936,910)	
XIV. 총포괄손익		4,755,333,949		4,406,519,73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941,532,737		4,272,938,162	
비지배지분	(186,198,788)		133,581,576	
XV.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94		167
희석주당이익		292		167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4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3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안산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 대표이사 : 오진수, 김장연
- (3)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장연	8,227,422	30.68
기타주주	18,587,315	69.32
합계	26,814,737	100.00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월 2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관계기업투자주식 -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6: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0: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3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용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투자부동산
- 주석 35: 금융상품
- 주석 36: 주식기준보상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교환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 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4 (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 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도로 등 제품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p>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유형별, 품목별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변동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p> <p>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p>
화학제품의 위수탁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제공	위수탁제조 계약 제품의 제조 용역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청구서는 용역서비스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에게 발행됩니다.	위수탁 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연결실체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9)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중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 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10년 ~ 40년
건축물	20년
기계장치	3년 ~ 10년
공구기구비품	2년 ~ 5년
차량운반구	1년 ~ 1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22)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채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채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23)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연결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5)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7)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상세한 주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74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3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74(당) 기말		제73(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264,339,914,195		232,117,743,383
현금및현금성자산	38,074,290,154		27,603,374,770	
단기금융상품	21,396,828,604		438,575,1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8,370,114,225		125,099,922,604	
기타유동금융자산	160,000		1,790,000	
재고자산	74,634,832,853		76,878,325,399	
기타유동자산	1,863,688,359		2,095,755,460	
Ⅱ. 비유동자산		271,803,996,836		273,228,997,933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743,331,296		6,753,391,29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31,344,239,832		31,744,739,832	
유형자산	218,150,046,180		216,284,182,389	
사용권자산	1,674,568,605		2,478,700,282	
투자부동산	4,443,420,977		5,987,530,613	
무형자산	5,511,394,307		6,093,851,668	
순확정급여자산	678,985,143		667,380,49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58,841,841		2,774,825,213	
기타비유동자산	793,168,655		438,396,143	
자 산 총 계		536,143,911,031		505,346,741,316
부 채				
Ⅰ. 유동부채		183,759,614,209		192,537,986,7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4,807,336,524		101,296,394,540	
단기차입부채	63,327,065,017		84,245,103,473	
당기법인세부채	1,372,912,294		1,173,232,088	
유동충당부채	1,110,356,789		1,057,037,861	
이연수익	143,351,019		129,717,398	
기타유동금융부채	136,088,933		924,269,623	
기타유동부채	2,747,173,983		2,571,031,780	
파생상품부채	115,329,650		1,141,200,000	
Ⅱ. 비유동부채		87,449,406,186		57,082,654,857
장기차입부채	68,703,300,019		38,746,445,240	
종업원급여부채	1,471,997,698		1,438,702,719	
이연법인세부채	16,737,608,469		16,881,006,89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36,500,000		16,500,000	

부 채 총 계		271,209,020,395		249,620,641,620
자 본				
Ⅰ. 자본금		13,407,368,500		13,219,375,500
Ⅱ. 기타불입자본		5,006,278,372		(3,041,048,329)
Ⅲ. 이익잉여금		246,521,243,764		245,547,772,525
자 본 총 계		264,934,890,636		255,726,099,69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36,143,911,031		505,346,741,316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74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3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4(당) 기		제73(전) 기	
I. 매출액		480,660,028,735		474,149,235,412
II. 매출원가		397,413,483,297		396,681,360,529
III. 매출총이익		83,246,545,438		77,467,874,883
IV. 판매비와관리비		75,177,008,649		69,678,553,770
판매비	30,796,227,630		26,553,745,393	
관리비	44,380,781,019		43,124,808,377	
V. 영업이익		8,069,536,789		7,789,321,113
VI. 금융손익		(2,881,443,126)		(5,186,298,924)
금융이익	3,494,493,954		693,679,682	
금융원가	6,375,937,080		5,879,978,606	
VII. 기타영업외손익		371,086,533		1,773,830,033
기타이익	2,992,207,099		3,158,548,900	
기타손실	2,621,120,566		1,384,718,867	
VIII.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손상차손		900,000,000		1,825,328,460
IX.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479,337,397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659,180,196		3,030,861,159
XI. 법인세비용		773,096,836		438,920,090
XII. 당기순이익		3,886,083,360		2,591,941,069
XIII. 기타포괄손익		(82,768,246)		(546,537,060)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72,219,840		(2,600,1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4,988,086)		(543,936,910)	
XIV. 총포괄이익		3,803,315,114		2,045,404,009
XV.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74		114
희석주당이익		174		11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4(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1년 3월 26일	처분확정일	2020년 3월 10일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74(당) 기		제 73(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99,054,674,988		198,081,203,74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5,251,359,874		196,035,799,74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54,988,086)		(543,936,9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재분류	72,219,840		(2,600,150)	
당기순이익	3,886,083,360		2,591,941,069	
이익잉여금처분액		3,553,707,050		2,829,843,875
이익준비금	93,996,500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150원(30%) 전기 125원(25%))	3,459,710,550		2,829,843,875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5,500,967,938		195,251,359,87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4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3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안산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2) 대표이사 : 오진수, 김장연

(3)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을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장연	8,227,422	30.68
기타주주	18,587,315	69.32
합계	26,814,737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 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월 2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6일자 주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관계기업투자주식 -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5: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 종속기업 손상검사 -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의 추정의 주요가정
- 주석 19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30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용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투자부동산
- 주석 33: 금융상품
- 주석 34: 주식기준보상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도료 등 제품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유형별, 품목별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변동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화학제품의 위수탁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제공	위수탁제조 계약 제품의 제조 용역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청구서는 용역서비스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에게 발행됩니다.	위수탁 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제조 계약 및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인식합니다.

②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외화환산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KRW)입니다.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이익·원가 또는 기타이익·손실로 분류됩니다.

(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 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 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 년
건축물	20 년
기계장치	10 년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5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18)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채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채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19)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상세한 주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 (상 호) 당 회사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u>SAMHWA PAINTS INDUSTRIAL CO., LTD. (약호로 S.P.I)라 한다.</u>	제 1 조 (상 호) 당 회사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u>SAMHWA PAINTS INDUSTRIAL CO., LTD. 라 한다.</u>	약호 삭제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 (생략) (2021.03.26 신설) 4. ~ 17. (현행과 동일)	제 2 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전기, 전자, 반도체 재료 제조가공, 판매업 및 관련사업 5. ~ 18.<좌 동>	사업다각화 목적 추가에 따른 번호 재부여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1. ~ 3. (생략) 4. 당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u>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u>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1. ~ 3. <좌 동> 4. 당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u>(이하 삭제)</u>	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제8조의4 (전환주식) 1. ~ 8. (생략) 9.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u>	제8조의4 (전환주식) 1. ~ 8. <좌 동> 9. (2021.03.26 삭제)	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 7. (생략) 8.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u> 9. (생략)</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 7. <좌동> 8. <u>(2021.03.26 삭제)</u> 9. <좌동></p>	<p>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p>
<p>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u>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 10 조의 4 (동등배당) <u>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p>	<p>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p>
<p>제 10 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 3. (생략) 4. <u>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 10 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 3. <좌동> 4. <u>(2021.03.26 삭제)</u></p>	<p>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규정을 삭제</p>
<p>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생략) 4.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u></p>	<p>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좌동> 4.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u></p>	<p>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p>
<p>제 12 조 (2019.03.08 삭제) (2021.03.26 신설)</p>	<p>제 12 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u>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 <u>2. 당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전자증권법 제37조 6항의 규정내용 반영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p>

<p>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2.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3.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u>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 13 조 (기준일)</p> <p>(2021.03.26 삭제)</p> <p>1.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2.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u>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p>
<p>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p> <p>1. ~ 4. (생략)</p> <p>5.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6. (2009.03.10 삭제)</p>	<p>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p> <p>1. ~ 4. <좌 동></p> <p>5.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당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p> <p>6. <좌 동></p>	<p>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p>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 4. (생략)</p> <p>5.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6. (2009.03.10 삭제)</p>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 4. <좌 동></p> <p>5. (2021.03.26 삭제)</p> <p>6. <좌 동></p>	<p>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p>
<p>제15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서 신설)</u></p>	<p>제15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p>문구를 명확히 함</p> <p>전자등록이 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p>

<p>제 32 조 (이사의 보선)</p> <p>1. (생략)</p> <p>2.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이사의 보선)</p> <p>1. <좌동></p> <p>2. (2021.03.26 삭제)</p>	<p>제29조 3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p>
<p>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p> <p>1. ~ 2. (생략)</p> <p>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신설)</p>	<p>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p> <p>1. ~ 2. <좌동></p> <p>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p> <p>개정 상법 제 542조의 12 제 7항 반영</p>
<p>제45조의 2 (중간배당)</p> <p>1. ~ 3. (생략)</p> <p>4.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45조의 2 (중간배당)</p> <p>1. ~ 3. <좌동></p> <p>4. (2021.03.26 삭제)</p>	<p>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 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p>

(신 설)	부칙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7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당 회사가 이 정관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6일)로부터 이 정관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른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개정 2021년 3월 26일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정훈	'72.03.1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정훈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5 ~ 2018 2019 ~ 2018 ~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컬리 비상근 감사	법인 법률자문 계약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정훈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정훈 후보)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다년간 법무법인에 종사한 법률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조언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입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정훈 후보)

다년간 법무법인에 종사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에서 축적한 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책임자로 판단됩니다.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고자: 이 정 훈 (서명 또는 날인)

※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 (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 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연현모	'63.03.21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연현모	(現) 우리종합금융 투자금융본부 전무	1987 ~ 2018	우리은행(상업은행)	해당사항 없음
		2018 ~	우리종합금융 투자금융본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연현모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연현모 후보) 다년간 금융권에 종사한 금융 전문가이며 국내외 경제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 다목, 라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1 월 28 일

보고자: 연 헌 모 (인)

※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
(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
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1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억원
최고한도액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3월 17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amhwa.com>

※ 참고사항

-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전에 확정된 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 및 이사회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과정 및 외부감사일정을 고려한 결과 개최일 변경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6일 9시 ~ 2021년 3월 25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3항)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체온측정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자체적으로 참석주주분들께 총회장 입장 전 ①체온계를 이용해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②마스크 착용확인 및 ③손소독제 사용, ④출입자명부 작성 후 출입이 허용되오니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